

buddhanews.com

두 손을 짝 벌려서 다 안아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

25면에서 계속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어서 태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다가 아무리 오래 낚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백 명을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말이예요, 밀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배움도 있고 상식, 교양, 학식이 있어서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전에 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축지법을 하고 수없이 육신 무예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막대기 하나를 짚고서 시도를 해 봤죠. 그랬는데 그 후에 잠깐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얘 겁니다만, 여자가 하는 일 없죠? 그냥 그 추운 데 앉아 있었더니 말이에요, 돌하고 나하고 웃하고 그냥 불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즐기는 하고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너머 집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지법을 한다면 저 건너 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뒤따르는 마음이 '어허, 이것은 내 육신 하나에 관한 건이지 육신이 아무리 축지법을 해서 저 집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몸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집을 한번 돌려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한생각에 의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고 한생각에 의해서 지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한 개인의 축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죠. 그래서 '아차! 나의 이 생각이 이 시점에서는 참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앞으로는 못 갈정당 뒤로 물러선다면 말이 되나?' 하고선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러 갔을 때에 없었습니다. 그때 골짜기 골짜기를 다니며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거죽에는 얼어붙고 그래서 흙을 파내고 파내고 요만한 돌 하나를 깨서 얼음을 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물을 꼭 벗고선 빨아서 꼭 짜서 입으니 그게 그냥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여차피 버린 몸, 하하하...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조심조심 가다가도 뭐 흙이 튀거나 비를 맞거나 그런다면 '에이, 여차피 버린 옷, 버린 몸!' 하고 그냥 맞고 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차피 버린 몸!' 하고서 있었더니 부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던지 양지에 있는 산소로 끌고 가서 그 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잘 말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됐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리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나는 못 산다, 산다 하고 애를 때에 그러한 뜻이 참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일 조건은 뭐냐? 내 주인공의 안테나. '주인'이라는 건 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는 데에 고정관념과 고정된 행과 고정된 말과, 고정되게 듣는 것과 고정되게 말하는 것과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것과 고정되게 먹는 것과 그렇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놓고 가면서도,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것이 도 대체 뭐기에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

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본래 자성, 바로 신이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래자성불인데 그 본래자성을 가운데에 바로 중생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고 동서가 둘이 아니고 세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잡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살생을 일부러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계율들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위로는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통솔력이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짝 벌려서 다 안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

세요.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가랑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이파리가 바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한 나무의 한 이파리를 잃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한 나무에 한 이파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수억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고 수억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법을 바로 중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자기 내면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딱 세워 놓고 '보고 듣고 하는 오신통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

고, 그 조성된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댄 거와 같 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치지 않았어도 주인공의,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안테나를..., 몸뚱이로 봐서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의 여래의 집이에요. 내 집만이 아닙니다. 한마음의 집이요, 이게, 여러분 몸뚱이가 한마음의 집입니다. 그대 한마음의 집에서 그 한마음으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다면 역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얘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몸에도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 소장이 대장처럼 하는 소리가 '여기가 이렇게 파위가 일어나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누진으로 신호를 울리는 거라고요. 신호를 울려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조치를 해야죠. 대장이, 선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아픈 걸 알면서도 금방 대처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이것은 의학이라고 심성의학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요 심성 없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있 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몸뚱이도 움직여줘서 왔죠? 마음이 있으니까 차도 끌고 다니지요? 마음이 있으니까 일체 만법을 응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누구의 짓이나? 잘못한 것 잘 하는 자의 짓이라 이거예요. 남이 잘못했다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더라도 만날 말로 잘못했다고 굴켜거리면 집안이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실로 이끌어질 않아요. 여자가 그렇더라도 그렇고, 또 자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천체무전통신기와 에너지는 거기로 속사포같이 그냥 한 찰나에 가서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전기 가 실이 되었기 때문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저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심성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7월 3일 부산지원 대법 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 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댄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는 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 조 흥인 선사가 밤중에, 삼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이나 했나요? 주정자를 탕 탕 탕, 세 번 쳤었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서 삼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가지 조건 말입니다. '본래자성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요. 이 중에 청정이라는 자체가, 바다가 깊어서 모든 물이 바닷물로 다 모이는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정물 깨끗한 물 뭘, 고품질 뭘물 다 한데 합쳐서 거기에 모이는 거!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찾는 거! 허허, 풍물에도 짓고 땀물에도 짓지 않습니까? 그걸 청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 본래자성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본래자성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이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이 움직여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네 가지를 가만

비밀 가져야만 우리 이 마음이, 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회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 당신이시여!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화목하게, 즉 말하자면 파위를 일으키지 않고 회전을 해 줄 때에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일하는 것도 능률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부모 조상들한테는 복을 빚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심력은, 보는 것만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이 없이 오고 가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 오신통도 놓고 나와야 바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타지에서 구하는 그 기복! 그것은 이익을 하지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 요 몸뚱이가 있을 때 요것만이 나라고 하지 마

으면 세균이나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와서 내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맘대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안테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을 건 들이게끔 해서 내 몸과 내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원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잘 내다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모든 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도 길이 있고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그냥 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허공에 생명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또는 그 뭘까? 저, 불 일어나는 거 뭘죠? 물어봐요.

대중 가운데서: 화산요.

스님: 네, 화산! 화산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생명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체가 지구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미생물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조성됐

노인복지 함께 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평생을 불가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워 금생을 회향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의 사고로 1급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나 10여년 전 아미타종을 창종하여 노인복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달마노인복지회'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의 뜻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아미타종 중흥 달마 합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1리 138-1 용주사

031)642-8345 / 010-9493-8977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전문
석 · 굴법당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화 041)331-6863~5

팩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귀한글귀한문 경용불교상용의식집

경용의식집 5권이면 엽불 [한글엽불·한문엽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엽불(기존엽불)과 한글엽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엽불+한문엽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엽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경용의식집은 엽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엽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경용의식집은 엽불 중 '운운'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예로까지 배려하여 엽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엽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만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엽불한다면 엽불과 경전공부를 한꺼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엽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실합니다.

구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혜택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